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역경제과, 공공 폐수 처리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 지역경제과(과장 김연희)가 최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지역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관리 역량 향상 등 부안군 지역경제과의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포상금의 일부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김연희 과장은 "공공시설을 성실히 운영한 결과로 받은 뜻깊은 포상금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시 환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 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가로수 지킴이 '방풍막' 설치 완료

정읍시가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 과정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으로부터 가로수와 조경수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다.

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으로 인한 수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내 주요 기존 화단 19개소(면적 약 3만 3000㎡)를 대상으로 방풍막 설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설제 살포 시 섞여 있는 염화칼슘 등의 화학성분이 도로변 화단으로 유입돼 나무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저하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제설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구역에 방풍막을 설치함으로써 제설제가 화단 내부로 튀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수목의 안전한 생육 환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겨울철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다가올 봄철에도 푸르고 쾌적한 녹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토부 청년주거정책 공모 선정

고창군 성송면에 농촌유학·청년농업인 위한 공공임대주택 46호 구축 예정

고창군 성송면에서 청년과 농촌유학 참여 가구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진다.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신활력산단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교촌리 청년특화주택'에 이은 민선8기 청년주거정책 4관왕(워드라플)을 달성하게 됐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으로 고창군 성송면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성송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은 총사업비 81억원(국비 35억원 등)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46호를 공급을 목표로,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청년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형 주택 16호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다자녀형 30호가 지어진다.

공모 선정을 통해 성송면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농촌유학과 청년농업인 정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주거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과 농업 기반이 결합되면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으로 활용되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까지 거론되던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도 점차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주거, 교육, 일자리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성송면을 시작으로 정주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심덕섭 군수의 청년주거정책 4관왕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LH, 210세대)', '신활력산단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200세대)', '청년특화주택(40세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46세대)' 등을 따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수는 "성송면은 우수한 교육 여건과 일자리, 주거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촌유학과 청년농업인 정착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송면에서부터 기반을 다져 나가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구 국민은행 건물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시민 쉼터·예술가 창작 공간 등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심 속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정읍시 수성동의 구 국민은행 건물이 시민을 위한 쉼터와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정읍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수성동 소재 문화예술플랫폼에서 이학수 시장과 유옥경 정읍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문화예술플랫폼은 정읍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구 국민은행 건물(수성동 578-3)을 전면 개보수해 조성됐다.

건물 1층은 전시장과 문화 소품 판매장, 라운지 쉼터 등으로 꾸며져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에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숙박 시설)와 공유 주방,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실 등이 마련돼 창작 활동 지원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설은 정읍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는 행정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합 측은 앞으로 이곳에서 전시회,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변산 해넘이축제' 31일 개최

신승태 축하공연·불꽃놀이·LED 달집 점등식 등 볼거리 풍성

부안군은 2025 변산 해넘이축제가 오는 31일 서해안 대표 해넘이 명소인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축제가 다가오면서 화려한 축하공연과 해넘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트로트 야생마'로 불리는 가수 신승태의 축하공연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해넘이가 예상되는 오후 5시 30분 전후로 LED 달집 점등식과 소원등 밝히기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

등을 밝히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신년 축하영상 상영, 대북공연, 불꽃놀이 등 과 '붉은 말의 해'를 테마로 한 소원꽃밭, 붉은 말 키링 만들기, LED 쥐불놀이, 감성 불명준 등 체험형 콘텐츠도 현장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시족·취준생 모두 모여라'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 내달 2~9일 모집

공무원직강반·공무원 동영상반·공기업반으로 구성

지난 3년간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취업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정읍시 청년취업 시험 준비반'이 2026년도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한다.

정읍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의 2026년 수강생을 오는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 과정은 수험생들의 수요가 높은 △공무원 직강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NCS)반 등 총 3개 과정으로 내실 있게 구성됐다.

먼저 공무원 직강반은 국어·영어·한국사 등 공종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과목에 대해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반은 수리 영역,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 핵심 3과목의 현장 강의를 제공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동영상반을 선택하면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개인별 학습 진도에 맞춘 공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

하고 있는 시민이거나 시민의 배우자·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령 기준은 18세부터 45세까지로 폭넓게 설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 총정로 93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3층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인재양성과 계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문을 연 청년취업 시험 준비반은 올해까지 공무원 36명, 금융권·공공기관 6명 등 총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생을 겨냥해 빈틈없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준비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도 원하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물가 안정 평가 '2년 연속 우수'

행안부 특교세 2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시는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탁월한 물가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노력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 사항 등 물가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됐다.

시는 그동안 고평가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선제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정기적인 가격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물가 안정의 숨은 공신인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들 업소에 소모품을 지원하고 노후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경제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